

# 고은 불교대하소설

## 다시 한번



었다. 폭풍해일에도 어떤 작정이 있어서 상대 방의 배후를 먼저 요정내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아무튼 우너는 아름이 어느 만큼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처지로나마 살아 있었다.

그는 거의 짐승들의 놀라운 본능이 그런 것처럼 비위등성이에 걸려있는 흙이진 때때의 햇빛 하나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런 행동은 마치 살아 다시 한번 해일 의 큰 파도덩어리가 들어닥칠 것을 예감 한 방어진지라도 모른다.

우너의 입에서 한 마디 말이 나왔다. 대견하였다. 몸과 마음이 웅망 파도에 떠 밀려 바위에 부딪치다가 흩어진 시꺼멓 파위에 얼어있기도 한 이레 그 아름이 극 심한에도 불구하고 입에 말을 담을 여유 가 있었다.

그동안 내내 신음이 아니면 신음을 참 는 일이었다. 그 신음도 어느 만큼 의식 이 회복되어서 가능하였다.

그러기까지 그는 온통 파도덩어리가 남 겨놓은 한 물건에 불과하였다. 나무토막 이나 날조각 아니면 질신 한 찌꺼기는 우너의 말에도 바로 그런 신발 한 짝을 말하는 것이었다.

"프프. 신발이 남아 있더나..."

그는 그 자신이 혼자 살아 남겨진 사실 과 이번에 이에 저승으로 가지 않고 살아 남은 사실을 신발 한 짝이 남은 달마의 빈 무덤에 자기자신을 비추어 보았다. 그것은 조금도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고 과 분한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그가 먼 달마를 아주 가까운 달 마로 불러들여 허물없는 대상으로 만든 셈이었다.

어디 달마만이라. 석가모니불도 그 이

리에서 만고(萬古) 그대로인 바위산들이 친길 만길로 되는 곳이었다.

그 뒤 달마가 친족으로 돌아가서 어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아무튼 우너는 달마가 신발 한 짝을 살 팍 남겨둔 것이 신기하기보다 빛이 이 세 상에의 애뜻함이나 어떤 미련으로 여겨 처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세상에 선(善)을 펼친 조사(祖師)가 어 찌 신발 한 짝 따위의 장난을 남겼는가. 그는 그것에 그 자신의 신세까지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무욕도 도량에서 왜 그가 혼자 남아 있었는가. 신발 한 짝의 장난이 어느덧 그 자신을 두고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번 물난리에도 잠자

**우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애욕을 열반과 다르지 않게 생각  
고요한 것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다가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바위 바 닥에 다친 짐승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는 아름이란 말인가.

그는 관세음보살이 서른 세대의 몸을 나타내는 것도 어떤지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 형상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으면 소리가 있다. 금강경은 그 환상과 소리가 사도(沙頭)라 하지 않았던가.

아름도 꾸준하면 몸의 일부분으로 여겨 지는 것일까. 우너는 그의 아름을 아름 그대로 견디는 동안 그것을 담당한 것으

너들과 해일로 돌변해 버린 그 자신을 약 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온 어느 때의 파도소리는 너무 나 오래동안 익숙한 것이었으므로 굳이 그것이 들리거나 들리 지 않거나의 분별 따위가 있을 까닭이 없게 되었다.

그에게 파도소리가 어떤 장애가 된 적이 없었다. 아니 그는 파도소리를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도리어 파도소리보다 작은 다른 소리 들, 예컨대 주눅이 잔뜩 든 선착장 바위 굴 속의 행자의 말소리 따위는 잘 들렸지만 그 말소리보다 큰 파도소리는 그의 청각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엄청난 파도덩어리들의 활동 이후 우너는 다친 몸으로 하여금 목 조의 세계가 어이없다는 느낌이 가는더란 밧줄기가 새어나오는 암실처럼 그 완벽한 어둠으로서의 지혜에 글이 가는 듯 하였다.



그 해 가을의 서해 보름사리 조수 (潮水)는 어느 때보다 많은 수 량으로 바다의 표면을 높였다. 그것이 너울을 이루었고 뒤이어 그 너울을 감당할 겨를도 없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해일로 바뀌어진 것이었다.

무욕도 선착장에 고정시킨 때때와 거듯 배 따위가 제자리에 고이 빠져서 있으리 라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러나 선착장의 배 따위와 함께 무욕도 자체가 아직 사나운 파도의 무덤에 파묻히지 않 은 것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도록 다행으

로 여겨야 하였다.

한차례 폭풍이 핏퐁과 지나갔는데도 그 넘쳐나는 바다 표면은 결코 낮아질 줄 모 르는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더이상 붙어 나지 않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그런 불안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무욕도 안쪽의 바닷가 마을 이나 섬에서는 사람이 저승에 가지 않고 저승이 사탄한테 온다는 속담이 있다. 사 나운 너울이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해일이야말로 사람에게 마구 달겨드는 저승이기 때문이었다.

섬의 위쪽 숲들도 아주 무자비한 군대 에 의해 쓰러진 희생자들의 시체처럼 큰 나무들이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이상 한 것은 바람을 정면으로 받지 않는 북쪽 과 동쪽의 육지를 바라보고 있는 지대가 더 피해가 큰 일이었다.

그래서 도랑이 있는 서남쪽이 나은 편 이었고 우너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전의 과거 7불도 옛날과 오늘이 없고 위 아래가 없게 서로 마음을 열고 들고 나는 한 지락 바람이 되어야 함이었다.

달마가 이교도에 의해 암살당한 뒤 그 시신은 화장하지 않고 땅에 불렸다.

빛날 한 사신이 흑령의 험한 길을 돌아 오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달마가 신발 한 짝만 들고 부러부러 돌아가는 것을 목 격하면서 나온 전설이다.

"나 고향으로 돌아간대나..."라고 그 달 마가 표표하게 말하였다. 그 사신은 꿈인 가 생사인가 모르게 놀랐다.

그가 돌아와 복명한 뒤 달마를 보았다 고 말하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한 사 람들이 달마의 무덤을 파보았다.

달마의 시신이 없고 오직 그가 신던 신 발 한 짝만이 묻혀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신이 만난 달마와 달마의 신 발 한 짝은 사실이었다. 흑령의 그 험악한 협곡 첫길에 해당하는 자갈사막 크트머

로 여기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경험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바다는 일단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갔 다 하더라도 그 파도의 활동은 바뀌어지 지 않고 있었다. 그 엄청난 파도덩어리들 의 위험한 움직임은 보는 것만으로도 머 리속이 회오리를 일으켜 어지러웠다. 그 런데 우너의 눈이 한번 놀라는 것이었다.

무욕도에서 바라보는 컹컹한 수평선이 사나운 돌날파도의 하얀 이빨들로 파문 해 있었다.

우너의 아름이 좀 수월해진 것은 그런 상상치 않은 수평선도 날이 저물자 그 자 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무렵이었다. 파도소리가 마치 커다란 짐들을 무너뜨 리는 것처럼 두려움을 더하고 있었다.

그 파도소리 때문에 우너의 입도 이따금 열려서 한두 마디를 파도소리에 보태기 마련이었다. 우너의 목조선이 이제까지 그 를 일상적으로 유지시켜 주었다가 이번의

나 세속의 일에는 끝내 발을 디디지 않고 비로자나불이나 석가모니불까지도 넘어서 는 미묘한 법신을 갖추는 일을 자랑하 였다.

신령스러운 지혜.

고요히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 이런 말이 굳이 권지의 그것이었고 먼 후대의 우너가 그 뜻을 부지불식간에 터 득하여 그의 고독 자체가 목조로 되어 마 당한 것이었다.

그런 우너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밀행(密行)으로서의 자유를 통해 서 애욕 자체를 열반과 다른 것이 아니게 생각하는 일이나 고요한 것에만 집착하 지 않고 무엇인가 뜨거운 불덩어리를 쓴 풍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활발한 추구로서의 과정을 바라게 되었다.

그것이 목조선에 대한 간화선인가. 목 조도 살아있으면 활불(活佛)의 일일이 죽 으면 오래된 개들의 일이었다. 목조가 그

럴진대 간화라 한들 그것이 죽은 것이라 면 가을걷이가 끝난 뒤의 빈 들에 남겨진 허수아비의 너털거리는 형조조가리와 1 천2백공안종의 피빛 화두 하나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알 수 없거늘... 알 수 없거늘..."

우너는 점점 힘을 더하고 있는 바다 저 쪽에 눈길을 주며 중얼거렸다. 알 수 없 다는 것도 화두가 되는 것인가.

"알 수 없거늘..."

대혜종고는 처음의 그것과는 달리 형식 적인 선정(禪定)을 좁은 한 것으로 여기는 조동종을 떠나서 입제종으로 가게 된다.

성공에 불이 붙어 있었다. 비단 수평에 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송나라에 항복을 강요하는 금나라에 화친을 강조하는 정 치세력에 대해서 그는 금과의 싸움을 주 장하는 주정론자에서 화친파의 모함으로 영남-관동지방-에서 10여년 동안 귀양 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그가 사면을 받은 뒤로는 극단적인 입 제선종의 증후에 앞장섰다.

그의 입에서 그와 의 적수라 할 풍지의 목조선을 목조사선(默照派)이라고 통 박하면서 간화선이 깨달음의 수단임을 새삼 강조하였다. 그래서 목조선이 이르 는 곳마다 자유로운 선인네 간화선은 이 념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금 이 막다른 시기에 우너는 하나의 이념을 꿈꾸기 시작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무욕도는 이것이다 저것이 다를 논란할 겨를이 없다. 수평선의 일은 곧 바다 전체의 일이었다. 그것은 끝내 무욕도를 삼키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까지와 다른 것은 그 바다 전체가 뒤집혀져서 모든 바다속의 생명 들이 바다 위의 파도덩어리에 떠오르는 일이었다. 죽은 고기들도.

그림·조향숙

## 바다 전체가 뒤집혀 생명들이 파도덩어리에 ...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민족의 정기 서린 백두산

순례지  
심양-연길-백두산-용정-도문  
-북경-대동-오대산-북경-청도

백두산성지순례 8일 ₩1,150,000

중국불교성지순례 일정안내

- 출발일
- 구화산·보타산코스 : 10월 21일, 11월 18일
- 동참금 : 1,150,000원
- 20명 이상 신청시 출발일 조정 가능

순례지  
상해-보타산-영파-항주-합산-구화산-남경-상해

구화산·보타산 성지순례 8일 ₩1,150,000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 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 (02)3270-3471~3 위동마린투어 ☎ (02)711-0111

